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자도 뜻을 트실 때는 상대체를 트신다.
2. 상대성 일체, 성공 세계다.
3. 상대체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고로 사탄은 항상 상대체를 방해하여 튼다. 이 비밀을 알아라.
4. 에덴동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인 아담과 하와를 꾀며 상대체를 틀었다.
5. 작아도 어려도 하나님의 상대체만 되어 끝까지 가면 할 수 있다.
6. 커도 상대체에서 벗어나면 못 한다.
7. 작아도 상대체만 되면 할 수 있다.
8. 섭리사에 있는 자들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이기에 재림역사의 신부들로서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재림의 뜻을 이룬다.
9. 섭리사를 나가면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못 이룬다. 기성은 커도 시대 신부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못 이룬다.
10. 작으나 크나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만이 뜻을 이루게 되고, 신랑으로 재림하신 성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11.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자와 그 분체의 상대체가 되게 해야 된다.

12. 본체 앞에,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상대체가 되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두고 상대체가 되어야 매일 쓰임 받고 하나님과 성자와 교통한다.

14. 전과도 상대체와만 통하고, 전화도 자기가 전화를 거는 상대체에게만 전화가 간다.

15. 상대성이다.

16.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는 ‘신부’다. 신부 외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지 않는다. 신랑이 종과 통하겠느냐, 형제와 통하겠느냐.

17. ‘시대 말씀’이 상대성이다.

18. 성자 본체도 그의 분체도 그때에 맞는 상대를 찾는다. 상대가 아니면 안 통하니 상대 기준을 세운 자에게 뜻을 편다.

19. 상대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못 편다.

20.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상황을 본 자가 상대체다. 그에게 작든지 크든지 일을 맡겨 그 일을 하게 한다.

21. 모세는 “나는 작은 사람인데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있다. 나의 충성된 자로서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때 다른 사람은 못 했다. 오직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는 모세만 했다.

22. 어제 밤이 늦도록 월명동 가이드 설명을 쓰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기도 시간에 늦었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잠언을 쓰고 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자이니 내게 잠언을 주시어 쓰고 있다. 상대자라서 시간적으로 작은 자이지만 잠언을 쓰게 하신 것이다.

23.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서 나무가 자라면, 고욤나무의 크기는 감나무 크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나 고욤나무는 감나무의 상대이기에 결국 참감 열매를 열게 한다. 다른 나무는 상대가 아니라서 열지 못한다.

24. 상대는 작아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주체와 대상, 성자 본체와 분체다.

25. 하나님 앞에 “못 한다.”, 성자 본체와 분체 앞에 “작다.” 하지 말아라. 상대체니까 본체와 일체 되니 할 수 있다.

26. 작은 것은 상관없다. 상대체만 되면 된다.

27. 가령 큰 돌을 세웠는데 돌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밑에 무엇을 받쳐서 돌을 세워야 한다면, 그 상대체는 바위도 아니고 큰 돌도 아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상대체 작은 돌이다. 큰 돌을 깨 가면서 그 밑이 받칠 필요가 없다.